

# “사람 살만한 네가지 요건 모두 갖춘 곳”

〈地理·生利·人心·山水〉

##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24>

### ■ 해상왕국의 꿈 서린 완도

이중환은 그의 택리지에서 “무릇 사람이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며, 둘째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셋째 인심이 후덕해야 하며, 넷째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적 위치는 비록 좋다 할지라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가 좋더라도 지리적 위치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 갈만한 산과 물이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 한다”라고 하였다.

### ■ 상황봉 정상, 氣 생성 근원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도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중환의 네 가지 거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완도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요건을 생성하고 있는 근원은 완도의 진산이면서 할머니 산인 상황봉이다.

상황봉 정상에서 풍수적인 관점으로 사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천시원의 시정터답게 바다 가운데 점점떠 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완도 본 섬을 향해 앞 다퉈서 물려드는 형세이다. 둘째로 할머니 꼬끼리(象皇峰)가 늑지의 숲 속에서 손자 꼬끼리(신지도의象山)를 찾는 형국이다. 이곳은 육지에 거의 맞닿아 있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천시원의 사시사철 넘치는 물산으로 생리가 풍족하여 인심이 넉넉하다. 웅장하고 풍만한 진산의 기상과 완도사람들의 성정

은 질박함과 개방적인 성향의 심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완도는 본래 백제의 새금현에 속했으나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년)에 장보고 대사가 정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한 곳이다. 장보고가 피살된 뒤 문성왕 13년(851년)에 정해진이 폐지되고 주민을 지금의 김제인 벽골군의 방조제 공사장으로 강제 이주시킨 다음 평생을 노역장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하였다.

그 후 고려 공민왕 원년(1351년)에 비로소 다시 주민의 거주를 허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와 상흔을 극복해 온 인고의 세월동안 완도 사람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가꾸어 온 꿈이 ‘해상왕국’이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설레임에 부풀어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지금의 ‘지천태괘(地天泰卦)’시대, 즉 대중이 중심이 되는 시대적 운세와 가장 낮은 지대의 바다와 강변 쪽으로 땅 기운이 내려와서 더욱 큰 힘을 얻고 있는 하원갑자의 불텍스(Vortex)가 그동안 소망해왔던 ‘해상왕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백운봉과 상황봉의 산정에 새물결 형성되어있는 거대한 불텍스는 ‘해상왕국’ 건설의 또 다른 비추어내지모 가능한 것이다.

상황봉의 경태룡(庚兌龍) 상정에 신좌을향(辛坐乙向)으로 맺은 혈은 할머니 꼬끼리가 높은 곳에 서서 손자 꼬끼리를 찾는 형국이다. 당관의 요석(礪石)과 석탄(石炭)이 사신사(四神砂)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서 혈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안산(案山)인 손자 꼬끼리가 멀리서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



완도 상황봉 정상에 있는 혈지를 보호하는 요석(礪石).

없다. 그런데 혈은 보기 쉬워도 재혈(截穴)이 난 망하기 이를 데 없으니, 물형(物形)의 상극 관계를 알지 못하면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곳이다.

이 세상에서 꼬끼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다. 밀림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도

### ■ 주변의 많은 섬들이 물려드는 형세

꼬끼리를 어떻게 해보지는 못한다. 오직 꼬끼리를 괴롭힐 수 있는 동물은 생쥐뿐이라고 한다. 그것은 꼬끼리에게 놀란 생쥐가 위험을 피해

꼬끼리 꼬꾸멍 속으로 들어가서 요리저리 콧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저것 꼬끼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꼬끼리 물형에 혈이 맺을 때는 반드시 쥐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소는 누워있어야 대혈을 맺으며, 사자는 하늘을 보고 큰소리로 울어야 혈을 맺는데, 꼬끼리는 서 있어야 혈을 맺는다고 한다. 그래서 상황봉(象皇峰)의 주혈인 입상형(立象形)도 꼬끼리가 서 있는 형상이며, 생쥐가 꼬 속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전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 전라도 역사이야기

-김철, 해방조국에 함흥 흠으로 돌아오다

## 함평 출신 독립운동가 김구와 임정수립 주역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본왕의 생일 기념식장에서 윤봉길의사의 폭탄이 터졌다. 시라카와(白川)대장, 요시다(吉田) 9사단장, 시계미즈(重光) 공사 등이 죽거나 다쳤다. 폭탄을 들고 선한 미소를 후세에 남긴 윤봉길 뒤에는 한민애국단이란 조직이 있었다. 백범 김구, 소양 조용은, 일강 김철의 주동으로 만들어진 한민애국단은 이봉창의거를 비롯한 작탄(炸彈)의거를 단행함으로써 1930년대 항일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고양시켰다. 한국인들의 독립의지와 한국-중국의 항일연대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철(金澈, 1886-1934)은 함평군 신광면에서 천석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을사늑약 이후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해 29세 되던 1915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젊은 지식인 김철은 식민지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1917년 중국 상해에 도착한 그는 이듬해 여운형, 장덕수, 조동호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정당이자 독립운동조직이었다. 또한 파리강화회의에 김구식을 대표로 보낸 정당이기도 했다.

김구식 파견과 독립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김철은 3.1운동 발발 직전인 1919년 1월 국내로 잠입했다. 함평에 들러 가산을 정리해 자금을



함평군에 건립된 김철선생 기념관.



일강 김철

마련했고, 천도교 대표 손병희를 만나 3.1운동 동정을 파악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 3만원 지원 약속도 받았다. 그가 조국땅을 밟은 마지막이었다. 3.1운동의 불화 속에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근대법을 배운 김철은 임시정부의 성립과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헌법을 제정했고, 교통국 차장으로 국내연락을 담당했다. 그는 대동단결과 화합을 중시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난 이후 많은 이들이 임정을 떠났지만 그는 김구와 함께 어려운 시기 임정을 지킨 중심인물이 되었다. 김구가 국무령을 맡았고, 김철은 군무부장으로 임정을 이끌어 갔다.

홍구공원 의거 이후 임정이 긴 피난·이동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임정을 지켰다. 김구와 함께 상해를 빠져나간 김철은 항주에서 임정진용이 재편될 때 재무장으로 임정의 살림을 맡았다. 1933년 중국 사관학교인 낙양군관학교에 한민특설반이 설치되어 한국 청년장교들이 양성되기 시작했고, 임시정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던 1934년 6월 김철은 48세에 급성페렴으로 사망했다.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지 18년만이었다. 항주 공동묘지에 안장된 그의 유해는 조국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독립정신만은 고향 함평 기념관에 오롯하게 재현되어 있다. /정병준 목포대 교수

### ■ 전라도 방언 (23)

### “질 줌 물어 봄시다”

표준어 발음법에서는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구지), 빼다(빼다지), 밭이(바치), 벼훤이(벼훤지), 땅에 묻히다(무치다)”처럼. 이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역시 발음을 쉽게 하려는 동화작용이다. 그런데 전라도방언에서는 ‘ㅣ’

모음 앞의 ‘ㄱ, ㅋ’도 ‘ㅌ, 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름’→지름, 길→질, 깊다→질다, 거드랑→저드랑, 걸리다→질리다, 키(箕)→치’ 등. 이런 변이는 경상·충청도방언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전라도방언에 뚜렷하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도 있다. 동란 중에 어떤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질’을 ‘길’, ‘지둥’을 ‘기둥’이라 하는 말을

듣고 “아! 서울 사람들은 ‘ㅌ’을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서울역에 가서 “요 봇시오, 견라도 광주 가는 차표 한 장 주씨요”라고 했다는 것. 또 ‘ㅎ’도 ‘ㅌ’으로 발음한다. ‘형님’→성님, 흥년→송년, 힘(力)→심, 쇠고기 ‘등심’도 실은 등의 ‘힘’이 변한 말이다. 옛말에서는 근육(筋)을 ‘힘’이라고 하였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 남도 야생화

-[[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키는 30~80cm 정도.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베비’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달콤한 띠를 뽑아 먹던 추억이 서려있는 꽃이다. /라규재 생태사자



**www.party-food.co.kr**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장년학업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시·시내 출장전문
- 제육대회·아유회
- 축하·행사 부요지원
- 연회장 주차장 준비

문의전화: 225-0085-7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김정현 상담전문 대표

“정확한 상담 서비스”

www.jibcho.co.kr

010-527-3588